

도서관 가는 길

2020 Vol. 42 통권 제42호 제27권 1호

생각을 꿈꾸고

독서칼럼
도서관이 만난 사람

문화가 머무는

추천도서
아동/청소년/성인/경남

우리의 도서관

도서관 행사
도서관 소식 / 글마당



CONTENTS

Gyeongnam Library MAGAZINE 2020 Vol. 42



06

04

품꾸고

04 인사말씀

경남대표도서관 정연두 관장

06 독서칼럼

내가 만난 최초의 도서관

- 이달균 시인(경남문인협회장)

도서관이 품고 있는 공간, 현대의 문화적 가치

- 강상도(경운초등학교 전담사서)

08 도서관이 만난 사람

‘동시동화나무의 숲’ 일구는 배익천 작가

머무는

12 추천도서

아동 추천도서

청소년 추천도서

성인 추천도서

경남 추천도서

발행월 2020년 4월 발행인 공공도서관경상남도지역협의회장(경남대표도서관장)

발행처 경남대표도서관 (5113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대표전화 055)254-4811 | 팩스 055)254-4819

발행등록번호 76-6481183-000001-09 편집·인쇄 (주)경남신문사

18



20

기획코너

- 18 기획❶ 봄의 시작에서
한국궁중꽃박물관
- 20 기획❷ 경남 특화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 22 기획❸ 경남의 수집가
경남향토자료전시관 양해광 관장

도서관

- 26 상반기 도서관 행사 일정
- 30 공공도서관 새 소식
- 36 글마당
마음을 나누는 도서관
- 43 경남지역 공공도서관 현황

18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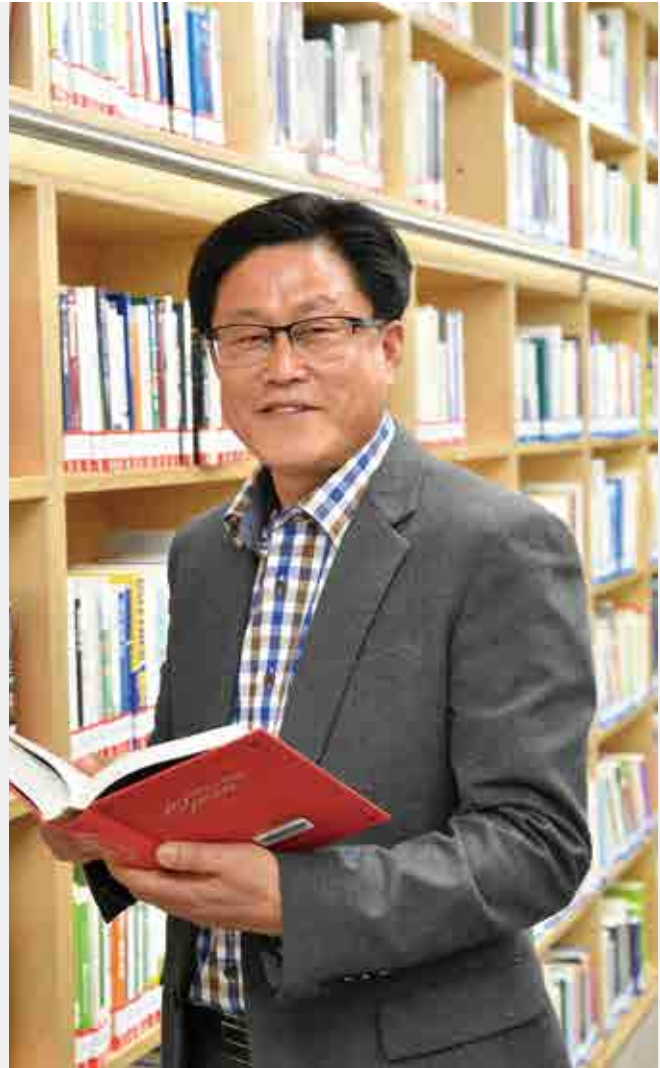
22



「도서관 가는 길」이 어울려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작은 공간이 되었으면 ...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 관장

도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시기에 도서관 종합 소식지 「도서관 가는 길」 통권42호를 발간하게 되어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임시휴관 기간 중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책을 수령하는 ‘북 드라이브 스루’와 자판기처럼 무인대출 반납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24시간 운영하고 디지털 형태의 책을 대출하는 전자도서관을 시군 도서관 회원들도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는 “비대면 도서 대출 특별서비스”가 폭발적 인기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 도민들의 독서 갈증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옛적에 도서관은 중·고등학생, 취업준비생을 위한 학습위주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를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복합문화공간 및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학습의 장으로 변화하며 주민들의 삶과 질을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가는 길」 창간호가 발간된 1994년 경남의 공공도서관은 29개, 장서 724,876권에 불과하였는데 26년이 지난 지금은 72개관에 장서 7,468,421권으로 양적으로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변화는 이용자들의 높고 끝없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사서들의 노력과 다양한 문화오아시스 조성으로 도민들의 삶과 질을 높이려는 자치단체와 교육청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여겨집니다.

2018년 경남대표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국립 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 도내 72개 공공도서관 및 424개 작은도서관과 함께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도내 도서관들의 혁신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도내 도서관들이 도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책 읽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책을 통하여 위인들의 가르침, 삶의 기쁨, 지혜 등을 배워왔습니다.

「도서관 가는 길」이 경남지역 지식문화 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어울려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작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북 드라이브 스루

독서칼럼 ①

행복한 내일, 함께 걸어가는 도서관 내가 만난 최초의 도서관

글 이달균(시인 · 경남문인협회장)



이달균 시인은 시집 『열도의 등뼈』 외 9권이 있으며, 1권의 영화에세이집과 시조와 산문으로 만나는 『한국의 석탑』이 있다. <중앙일보시조대상>,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조운문학상>을 비롯, 여러 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는 경남문인협회장과 한국시조시인협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나의 첫 도서관은 헌책방이었다.
어느 날 그곳에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책 한 권을 만났다.”

지금은 도서관의 시대이다. 아니, ‘독서의 시대’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안락하고 품위 있는 도서관 시설에 비해 독서인구와 열정은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기 때문이다.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면 이런 환경은 꿈만 같다. 언제든 도서관 문은 열려 있고, 읽고 싶은 책은 검색하면 찾아준다. 나도 간혹 도서관에 갈 때가 있다. 누굴 만나 가볍게 커피 한 잔 하러 갈 때도 도서관은 즐거운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역시 청소년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간혹 보여도 그들은 독서라기보다는 입시 공부에 열중해 있다. 이것이 도서관과 현실의 괴리이기도 하다.

나의 첫 도서관은 헌책방이었다. 중학교에 갓 진학한 해였다. TV는 고사하고 라디오 하나 없는 자취생활을 시작하면서 영양실조로 심한 두통을 앓고 있었다. 그때 내가 발견한, 가장 값싸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헌책방이었다. 당시 헌책방의 책들은 작은 활자에다 비로포대로 표지를 싼, 그야말로 볼품없었지만 내겐 더없는 양서였다. 엉덩이를 겨우 받칠 둥근 나무의자에 앉아 몇 시간씩 책을 읽던 추억이 새롭다.

어느 날 그곳에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책 한 권을 만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다. 나는 불현듯 그 책을 갖고 싶었다. 식민시대 한 청년이 써 내려간 풋풋한

시들은 날 잠 못 들게 했고, 망설임 끝에 마침내 생애 최초의 도독질을 감행하게 되었다. 책을 품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황급히 책방을 나왔다. 며칠을 끙끙 앓으며 그곳에 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문을 열고 찾아간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책방 아저씨는 짐짓 알고도 모른 척해주었다.

그 시집 속의 시 『별 헤는 밤』에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프랑시스 잠’이란 낯선 이름이 나온다. 당시 나는 어찌어찌해서 릴케의 책은 만났지만 끝내 프랑시스 잠은 만나지 못했다. 그런 기억을 안고 성인이 되어서야 그의 시집을 읽으며 당시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내가 만난 최초의 도서관은 그런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금의 도서관은 너무 안락하고 풍부하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책인들 읽을 수 있다. 몇 시간이고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환경이 부럽다. 그 풍요가 외려 소중함을 잊지나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책을 읽기도 하지만 다양한 교양 강좌도 열린다. 도서관의 푸르고 넓은 그늘 아래서 우리들 마음의 키도 훌쩍 자랐으면 한다. 상실 속에서 얻어지는 사랑보다 풍요 속에서 가뭄가는 사랑이 한결 든든할 것임은 자명하니까.

독서칼럼 ②

도서관이 품고 있는 공간, 환대의 문화적 가치

글 강상도(경운초등학교 전담사서)

“가끔, 가볍게 동네 도서관에 들러
나름 끌림의 책을 찾아 그곳의 공간에서 긴 호흡으로 들여다보자.”

시국이 어수선해도 봄은 오고 있었다. 봄의 기억 중 가장 떠올려지는 곳이 통영의 봉수골 벚꽃거리다. 아직도 그곳의 풍경이 아른거려 잊을 수가 없다. 흠날리는 벚꽃잎들이 동화 같은 수채화로 담겼다. 봉수골의 거리는 책방, 미술관, 커피점, 가게 그리고 마을이 지닌 공간의 환대로 오래된 삶의 정체성을 품어 왔다.

김현정의 저서 <사람, 장소, 환대>에서는 “장소는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라 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정체성을 지닌 곳들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많아졌다. 특히, 도서관이 지닌 다양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환산할 수 없기에 나는 매일 출근하고 있는지 모른다. 도서관은 도서대출증만 있으면 원하는 책을 빌려 가거나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책 읽을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사서의 도움으로 책의 큐레이터를 안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이 좋으면 상주작가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과 독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그림책 원화 전시도 보고 퀴즈도 풀어본다. 가끔 오래된 영화를 감상하거나 북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해도 좋다.

도서관은 나에게 일상의 변화, 가볍게 방문하여 문화를 향유하는 곳이 되었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 편안하게 머물며 나만의 일상을 즐길 수 있었다. 가성비 좋은 문화생활의 아이콘이자 삶의 지성을 채워주기도 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영역들이 폭넓게 퍼졌다. 가족을 위한 공간, 혼자만의 공간,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 토론하는 공간은 새로운 것들을 생성해 내기에 충분하다.

공간도 좋지만 서가 사이로의 진입은 나와 책과의 접촉하는 시간이다. 청구기호 또는 수입 순으로 배열된 책들 속에서 가끔 삶을 울리거나

도전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매료된다. 서가에서 나를 일깨워주는 책은 우연한 발견(Serendipity)의 묘미다. 이런 이유로 도서관은 얇은 장소에서 환대와 응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곳임에 틀림없다.

도서관은 우리에게 지적 허영심보다는 삶의 인간다운 양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장소다. 또한, 소수자를 위한 접근성도 도서관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넘어 인류를 향한 가치로움을 품고 있다.

임윤희의 <도서관 여행하는 법>에서는 “도서관은 책뿐만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한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다. 그 만남은 때론 소소해 보이지만, 그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 공간이 가진 힘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에 어쩌면 우리는 가느다란 희망의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지 모른다.

하루의 일상이 색다른 공기와 향기에서 소소함의 따뜻한 온기를 불러 모은다. 매일 비슷한 동선을 걷지만 책의 여행은 또 다른 감성으로 전달된다. 종류~역사까지 책이 가진 진한 속성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시간만큼 우주에 서 있는 기분에서 습관적으로 방문하기도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도서관이 지닌 가치를 누릴 때이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차별이 없으며 열려 있다. 그런 도서관에서 우리 삶의 다양성을 찾았고 발견했었다.

요즘 도서관은 복합 독서문화공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매혹적이고 흥미진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세계관으로 연결된 도서관에서 현대의 가치를 누렸으면 좋겠다.

가끔, 가볍게 동네 도서관에 들러 나름 끌림의 책을 찾아 그곳의 공간에서 긴 호흡으로 들여다보자. 우리의 삶은 도서관과 맞닿아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현대의 장소로 향해 갔음을 희망해 본다.

“

동동숲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어 있고
숲 향기를 마시며 책을 만날 수 있죠

”

‘동시동화나무의 숲’ 일구는 배익천 작가



Q

동시동화나무의 숲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와
숲이라는 공간을 터전으로
잡게 된 이유를 알고 싶다.

어릴 때부터 숲을 가꾸는 것에 꿈이 있었다. 중학교 시절에도 목장을 하나 사는 것에 동경이 있었다. 나의 고향 경북 영양은 강변이 그대로 자갈밭이었고 그 자갈밭에 염소를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카시아 나무와 소나무가 자갈밭에 잘 자라기 때문에 염소의 양분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직장이 있던 부산 근교로 오랫동안 살 집을 알아보았다. 그때 신문에 뜬 고성 촌집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 집을 사게 되었고 퇴직을 하면 산 밑에 밭을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하던 때에 근처에 이 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산을 가꾸고 살고자 하던 꿈이 정말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2003년에는 동화나무의 숲이었고, 2009년에 동시동화나무의 숲이 되었다. 아동문학을 위한 숲을 가꾸려면 동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이름을 동시동화나무의 숲으로 바꾸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Q

동동숲 안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동숲의 세상을 채워주는 행사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2020년 동동숲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



모체는 '열린아동문학'이다. 회사에 다니면서 어린이 잡지를 30년간 만들었다. '열린아동문학'은 아동문학가인 고 유경환 선생님이 처음 만든 것이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잡지를 나에게 유지로 남기신 걸 알고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친분이 있던 부산 민락동의 '방파제 횃집' 홍종관 사장이 지원을 해주면서 평소 만들고 싶었던 잡지대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잡지를 30년간 만들어온 노하우와 지원이 있다 보니 전국에 있던 아동 문학가들의 굉장한 반응이 좋았다.

지금까지 아동문학잡지들이 대체로 원고료를 주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홍종관 씨 부인 박미숙 씨가 문인화를 하시는 분이다. 원고료를 주진 못해도 멸치, 감말랭이, 김, 겨울에는 김장김치, 그리고 화선지에 시를 쓰기도 하고 서화를 넣어서 정성을 표현하려 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잡지 하나를 발행할 때마다 부산의 횃집으로 잡지의 나오는 작가들을 불렀다.(한 잡지당 필자가 45명 정도 된다.)

아동문학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인기가 있어졌다. 그렇게 되면서 '열린아동문학' 시상까지 오게 되었다. 1년간 실린 작품 중에 동시 1편, 동화 1편을 뽑아서 시상식을 하게 되었다. 1회 시상식은 건물도 없는 터만 잡은 이곳에서 시작했다. 고성군이 떠들썩했던 축제였고 그 시상식이 올해 10회까지 오게 되었다.

전년도 수상자가 올해 수상자에게 이 주변에 나는 야생화로 만든 화관을 씌워준다. 상금은 300만 원이며 상품이 30여 가지 된다. 마을 주민들이 키운 마늘, 파프리카, 쌀자루, 양파 등이 상품이고 수상자는 올 때 반드시 트럭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그래서 이제는 오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번호를 나눠주고 경품추첨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로는 '나무주인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아동문학가의 이름 돌을 직접 파고 심은 나무들이 이제 200그루 가까이 되었다. 각자의 나무를 관리하고 정리하는 행사를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고성군 대표축제로 시상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대가면 전체, 그리고 고성군까지 축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동시와 동화가 꼭
아동들에게만 국한되는
문학은 아닌 것 같다.
최근 온오프라인의 서점에
서가를 조금씩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그림책이고
성인 독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최종적인 종착지를 그림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학가들이 나이가 들면 아동문학을 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만 아동문학의 장르가 있다. 유럽은 아동문학의 경계가 없다. 아이가 읽을 수 있으면 아동문학이다. 현역 문학가들이 아동문학을 했으면 하는 것은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역량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동화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편 개념이 많이 흐려지고 아이들이 그림매체와 점점 친해지게 되면서 그림책과 매치된 것이다. '빅북'이라는 것이 요새 나오고 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보기 좋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뿐만 아니라 어른들, 특히 노인들이 읽는 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동화를 '씨앗의 문학'이라고 칭한다. 동화를 읽었을 때 재밌게 읽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후에 자라면서도 동화의 장면과 주인공의 대사가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면 새로운 자신과 만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의 동화의 힘이라 생각한다.

Q

작가님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다.
1974년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40여 년간 200여 편에
가까운 동화를 쓰셨으며
소천아동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하시고 아동문학계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작품 활동에
힘쓰시고 계신다.
이러한 동화의 소재나
내용은 어떤 영감으로
쓰시는 건지 알고 싶다.

예를 들어 고성군 공룡엑스포 홍보대사가 되었을 때 '빛물, 공룡을 깨우다'라는 타이틀이 너무 좋았다. 그걸로 이야기를 쓴 거다. 공룡박물관에 있는 공룡조형물이 깨어나서 고성저수지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것이 '빛물, 공룡을 깨우다'라는 동화이다. 공룡의 저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스토리텔링하고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걸로 공룡에 대한 고성 전체의 축제도 만들 수 있다.



Q

매년 아동문학가들의
이름으로 나무들이
심어지고 있다.
십 년, 백 년 뒤 그 나무들이
동동숲을 울창하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시간들
사이에서 동동숲이
지역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미지와 역할로 자리 잡길
바라시는지 알고 싶다.



숲 곳곳에 도서관 4개를 짓는 게 목적이다. 동시도서관, 동화도서관, 그림책도서관, 공룡 도서관이다. 우리나라 아동 문학가들이 지은 아동문학도서는 고성군 이 숲에 오면 다 있게, 멋진 도서관을 짓고 싶다. 메인도서관도 지어서 재밌는 방을 꾸며 아이들이 책을 읽으러 오고 싶도록 하고 싶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이 동시동화나무의 숲을 와 봐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곧 그렇게 될 것이다. 1만6,000평의 숲에 사시사철 꽃이 지천에 피어 있고 숲 향기를 마시면서 책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동시동화나무의 숲(동동숲)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 4길 279-47



아동 추천도서



하늘을 달리는 아이 글쓴이_ 제리 스피넬리

추천 사유 전 세계 330만 독자들을 감동시킨 현대의 고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장소설로 인종 간의 갈등을 아이들만이 갖는 순수한 우정으로 풀어내고 있어 독자에게 감동을 전한다.

추천인 마산합포도서관

달케이크 글쓴이_ 그레이스 린

추천 사유 2019 칼데콧상 수상작. 작가는 월병을 보고 달 같다는 딸의 말에 아이디어를 얻어 달의 신비롭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감각적인 일러스트를 통해 풀어내었다. 엄마가 식히기 위해 잠시 하늘에 띄워둔 달케이크. 손대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잊고 꼬마 별이가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데... 별이가 먹어서 조금씩 달의 모습이 변하게 되고, 달 부스러기가 은하수로 반짝이는 예쁜 그림책이다.

추천인 마산회원도서관 이유진

너와 함께 있을게 글쓴이_ 베르너 홀츠 바르트

추천 사유 살아가는 동안 이사나 전학 등 여러 가지 헤어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헤어짐이 정말 슬프기만 한 것일까? 헤어짐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행복을 말한다.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한 사라지는 것은 없다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그림책이다.

추천인 밀양도서관 권진

납작한 토끼 글쓴이_ 바두르 오스카르손

추천 사유 어린이가 받아들이는 죽음을 토끼로 표현하였다. 어른에게는 다소 무거운 죽음이라는 주제를 유머로 달리 표현한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인다.

추천인 삼천포도서관 배진희

소녀와 소년, 멋진 사람이 되는 법 글쓴이_ 윤은주

추천 사유 <‘여자다움’, ‘남자다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이 책은 여자다운 것은 무엇이고 남자다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책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들은 성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임을 알려준다.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고 싶은 이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추천인 산청도서관 정은주

괜찮을거야 글쓴이_ 시드니 스미스

추천 사유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 낯선 도시를 해매는 아이가 있다. 거대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며 한발 한발 나아가는 작은 존재들의 용기, 그리고 그들이 안녕하기를 바라는 주변의 따뜻한 마음이 섬세한 그림에 담겨 벅차게 다가오는 그림책이다.

추천인 사천도서관 서빛나



왕자와 드레스메이커 글쓴이_젠 왕

추천 사유 타인의 개성에 대한 존중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 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미 굳어져 있는 사회의 잣대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랑은 관용이 되어 타인을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왕자는 남자다워야 해!”라는 잣대에 용감하게 맞선 세바스찬과 프랜시스처럼,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함께 꿈을 이뤄가는 용기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

추천인 양산도서관 류주연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

글쓴이_김미혜 그림_최미란

추천 사유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그 호랑이’가 죽은 뒤, 저승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담은 이야기. 전통적인 소재와 그림체를 활용하여 호랑이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그림책.

추천인 양산시립도서관 변요셉



숲에서 만난 이야기 글쓴이_채인선

추천 사유 주인공인 예나가 동물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에서 아이들은 책을 읽고 듣는 것에 대한 색다른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또 예나가 잃어버린 책의 뒷이야기는 끝까지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뒷이야기를 마음껏 상상해보고 직접 작가가 되어 글을 지어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추천인 웅상도서관 이슬

Have you seen my TRUMPET 글쓴이_Michaël Escoffier

추천 사유 Here you will find ridiculously delightful art, an engaging narrative, and wordplay that will keep even preschoolers deeply engaged.

- 터무니없이 즐거운 예술과 매력적인 이야기, 그리고 유아들까지 깊게 참여할 수 있는 말장난이 뛰어난 작품이다.

추천인 양산영어도서관 라유간 제닐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글쓴이_이현정

추천 사유 세상에 존재하는 소중한 말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등 아이가 자라면서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말들을 모아 두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의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자.

추천인 밀양시립도서관 최혜정

청소년 추천도서

실시간 검색어 1위 글쓴이_ 박현숙

추천 사유 저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주어진 시간이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을 앞두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책 속 인물들의 모습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 이 책을 읽고 남은 학교생활을 어떻게 보낼지 한 번쯤 고민해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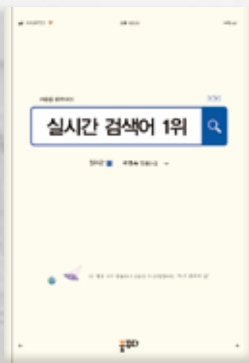
추천인 밀양도서관 곽상호

그림이 보이고 경제가 읽히는 순간

글쓴이_ 태지원

추천 사유 그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책이다. 그림이 그려진 시대에 일어난 사건과 화가의 사연 속에서 경제와 맞닿는 이야기들을 흥미진진하면서도 쉽게 설명한다. 친절한 저자의 안내를 따라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경제가 친근하고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다.

추천인 밀양시립도서관 최혜정



맹탐정 고민 상담소 글쓴이_ 이선주

추천 사유 작은 바닷가 마을에 유일한 탐정 중학교 1학년 맹승지는 마을 주민들의 몇 개의 고민을 해결한다. 휴대폰 분실 사건, 공부 잘하는 언니 엄마의 미스터리, 친구의 자아 실종 사건, 비밀 폴더 사건 등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펼쳐는 이야기가 매력적이다. 요즘 아이들의 생각,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추천인 산청도서관 황다슬 / 양산도서관 김예빈

원통 안의 소녀 글쓴이_ 김초엽

추천 사유 동화책 읽기에서 멈춘 청소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책. 완벽해 보이는 미래 도시에서 소외된 두 사람, 지유와 노아의 우연한 만남과 우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노아의 사연을 알게 된 지유는 세상에 절대로 완벽한 것이란 없다는 서글픈 진실을 깨닫게 해준다.

추천인 삼천포도서관 조승리

독고슴에게 반하면 글쓴이_ 허진희

추천 사유 시선을 끄는 전학생 ‘마녀’ 독고슴과 교실의 ‘여왕’ 단태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교실의 암투극, 그리고 그 내막을 파헤치는 ‘탐정’ 서울무가 펼쳐진 삼각 추리극. 다양한 캐릭터와 복잡하게 뒤엉킨 관계들의 반전을 통해 소문과 편견을 넘어 타자에 대해 오롯이 알아갈 용기를 주는 책이다.

추천인 사천도서관 박종민

물속을 나는 새 글쓴이_ 이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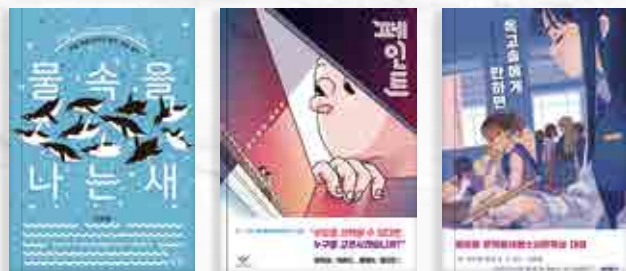
추천 사유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펭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젊은 동물 행동학자의 남극 펭귄 생태 관찰기.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우며 지구는 얼마나 인간이 미치지 못한 영역이 많은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추천인 마산합포도서관

페인트 글쓴이_ 이희영

추천 사유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주관의 생겨나는 청소년기에 자신과 함께 살 가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상상력으로 시작하는 소설이다. 좋은 부모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추천인 마산회원도서관(내서분관) 배영미



아몬드 글쓴이_ 손원평

추천 사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과 여러 특징을 가진 인물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특히,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진 공감 불능인 이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책이다.

추천인 양산시립도서관 이은지

Julie of the Wolves 글쓴이_ Jean Craighead George

추천 사유 When she finds her way to civilization, Miyax is torn between her old and new lives. Is she Miyak of the Eskimos—or Julie the wolves?

- 그녀가 문명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을 때 미약스는 그녀의 오래된 삶과 새로운 삶 사이에서 고민한다. 그녀는 에스키모족의 미야크인가? 아니면 줄리에의 늑대인가?

추천인 양산영어도서관 라유간 제닐린

나는 왜 자꾸 눈치를 볼까? 글쓴이_ 캐티 케이

추천 사유 자신감은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까? 자신감이 부족해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현실에 공감하고 '자신감의 공식'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준다. 다양한 캐릭터의 이야기와 만화가 같이 실려 있어 청소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추천인 웅상도서관 안성욱

성인 추천도서

오전을 사는 이에게 오후도 미래다

글쓴이_ 이국환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게 하는 글들이 담겨 있다. 정해진 길보다 흔들리고 고민하며 걸어온 곳곳에 삶의 의미는 존재할 수 있다. 흔들리고 고민하며 불안을 안은 채,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곧 다가올 오후도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다독인다.

추천인 밀양도서관 안선희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글쓴이_ 장원청



세상을 관통하는 심리 학의 75가지 심리 법칙. 저자는 적절한 해석과 예시를 통해 누구나 겪어 봤음직한 상황들에 어떤 심리 법칙들이 숨어 있는지 알려 준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은 꼭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짐으로써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추천인 마산회원도서관 이유진

행운을 찾아서

글쓴이_ 세르히오 라이틀라



불행 씨와 행운 씨의 급작스런 여행을 통해 진정한 행운의 의미를 찾아보는 감성 그림책이다. 책의 앞 뒷면을 따라 가다 보면, 예정에 없던 일 앞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선택에 따라 행운과 불운을 불러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하지만 행운이 꼭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추천인 양산도서관 이소영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글쓴이_ 백세희



현재 지독히 우울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애매한 기분에 시달린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저자의 치료 기록을 담고 있는 이 책은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곪아 있는 사람들,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한 치료 기록을 보여준다.

추천인 밀양시립도서관 최혜정

오늘부터 딱1년,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

글쓴이_ 샘촌



내 삶을 찾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또한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 중간 중간 자신을 삶을 엿볼 수 있는 물음들이 많고,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

추천인 양산시립도서관 이은지

보고 싶은 사람들 모두 보고 살았으면

글쓴이_ 안대근



이 책은 저자의 삶에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긴 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내밀하고 섬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읽는 이들로 하여금 소중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닿고 포개어지던 경험을 반추하게 해준다.

추천인 사천도서관 박순미

좋다고 하니깐 나도 좋다

글쓴이_ 나태주



풀꽃 시인 나태주가 인생과 행복에 관해 들려주는 산문집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이 시기에 잔잔한 미소와 삶의 의미, 위로를 받을 수 있기에 이 책을 추천한다.

추천인 산청도서관 이승혜

슬픈 쥐의 윤희

글쓴이_ 김용옥



총 13편의 단편이 수록된 소설로, 철학이 도출 김용옥의 일상적 삶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여운과 울림은 묵직하다.

추천인 삼천포도서관 조혜정

I SEE YOU

글쓴이_ Claire Mackintosh



Exciting, Shocking Unbelievably Clever! Read this. You won't be sorry.
- 흥미롭고 충격적이며 믿을 수 없이 똑똑하다! 이것을 읽어라 후회하지 않을 거야.

추천인 양산영어도서관 라유간 제닐린

경남 추천도서

호랭이 꽃방귀

글쓴이_ 박윤규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천둥 같고 냄새마저도 두려움의 대상인 호랭이. 자신을 비우고 변화한

호랭이가 친구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심의 세계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싶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과 맞물려 있다.

추천인 밀양도서관 권진

나의 두 사람

글쓴이_ 김달님



조손가정에서 자란 작가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사랑이 찾아든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추천인 마산회원도서관(내서분관) 배영미

말지도를 전하는 아이

글쓴이_ 이하은 그림_ 권세혁



경남지역 작가의 작품. 서울 문화재단 창작상을 수상했다. 일제강점기 가아유물탈취 사건을 다룬 책으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사동화이다.

추천인 양산시립도서관 변요셉
양산영어도서관 양현정

밀양 자전거 여행

글쓴이_ 황해령



밀양의 진정한 매력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총 4부에 나누어 밀양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이 책은 밀양의 역사적

공간부터 유명한 영화 관광지까지 다양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참고하여 밀양 자전거 여행을 한 번 떠나보자.

추천인 밀양시립도서관 최혜정

새는 수행을 한다.

글쓴이_ 송창섭



송창섭 작가는 삼천포 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하고 현재 삼천포도서관 상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에 출간된 이 시집은 1부 잠자리의

생, 2부 장작, 3부 봄, 4부 어머니 등 총 4부로 나누어져 있고 4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오랜 투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견져 낸 사색의 세계와 그리움을 시를 통해 공감할 수 있다.

추천인 삼천포도서관 류지영

맛있는 경남

글쓴이_ 남석형, 권범철, 박민국, 이창언



식문화 속에는 예부터 이어져 내려온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각 지역의 역사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을 주제로

하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타전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로서,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한 번 놀러오고 싶은 곳, 살고보고 싶은 곳이 될 기회가 될 것이다.

추천인 웅상도서관 이슬

돌아보니 아름다운 세상

글쓴이_ 이경자



개인의 삶 속에서 견져 올린 이야기를 통해 개인을 넘어 사회,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책을 읽고

'돌아보니 아름다운 세상'에 걸맞은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추천인 마산합포도서관

책 정리하는 법

글쓴이_ 조경국



고등학교 시절부터 책을 쟁이기 시작한 애서가이자, 집 안 곳곳에 쌓인 책으로 아예 책방을 차려버린 진주 '소소책방' 책방지기 조경국

작가의 책 정리법을 다룬 책이다. 책 때문에 괴롭고 책 때문에 즐거운 모든 애서가를 위한, 책을 사랑하기 위한 안내서에 가깝다.

추천인 사천도서관 박순미

밥장님! 어떻게 통영까지 가셨어요?

글쓴이_ 밥장



세계를 여행하며 그림으로 기록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은 어느 날 호적상의 고향 통영으로 이사한다. 새로운 환경은 어색하지만 그 속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며 새로운 삶을 찾아간다. 3년간 직접 살아보며 느낀 고향의 모습을 그림일기로 보여주며 통영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은 이에게 추천한다.

추천인 산청도서관 황다슬



한국궁중꽃박물관

‘조선왕조 궁중채화’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한국궁중꽃박물관이란?

위치 : 경남 양산시 매곡외산로 242(덕계동)

구성 : 비해당(전시관), 수로재(박물관),

체험실, 연구실, 휴게실

<http://royalsilkflower.co.kr/gb/>

조선왕조 5백년 동안 나라의 큰 잔치가 있을 때 궁궐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조선왕조 궁중채화’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계 유일무이한 궁중채화박물관.

역사 속에서만 있던 궁중채화를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다음 세대가 감상하며 누구에게나 전수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고자 설립했다.

전통 궁궐 건축 양식으로 수로재(水路齋)와 비해당(匪懈堂)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선왕조 궁중채화 작품들과 문헌, 제작 도구를 비롯해 이와 관련된 박물관 소장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매화가 지천으로 아름답게 피고 지는 양산 매곡리의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10여 년간의 건축공사를 걸쳐 정성스럽게 지어졌다.

①

조선왕조의 꽃, 조서관 왕조 궁중진연을 장식하는 비단, 밀랍 꽃.

조선시대에 화려하게 피어났던 조선왕조 궁중채화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왕조 궁중 문화 말살 정책으로 소멸되어 역사의 기록 속에만 존재해 왔으나 국가무형문화재 제124호 궁중채화장 황수로 장인이 지난 50여 년 동안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의례(朝鮮王朝儀軌)>의 '채화도(綵花圖)', <윤회매십전(輪回梅十箋)> 등의 고문헌들을 연구하여 조선왕조 궁중채화를 완벽하게 복원 제작하였다. 궁중에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살아있는 꽃을 꺾지 않으므로 장식용 꽃은 모두 직접 만들어 썼다. 비단으로 꽃을 일일이 자르고 묶으며, 수술은 한 가닥 한 가닥 송화가루와 꿀을 묻혀 만든다. 이 향기에 진짜 벌과 나비가 날아들기도 한다.

②

팔각 지붕의 양쪽 누각을 지닌 한옥으로 국가무형문화재들과 한국 최고의 장인들이 철저한 고증을 통해 한국전통양식으로 복원한 한옥과 현대건축 양식이 조화로운 건물. 조선왕조 궁중의례의 장엄을 재현한 전시실과 한국 궁중채화 제작관련 유물 전시. 수로는 한국궁중꽃박물관 설립자인 회장 황수로의 아호이다.

③

비해당은 조선 제4대 왕 세종대왕(世宗大王, 1397~1450)이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에게 직접 내리신 당호이다. 비해(匪懈)란 말은 시경의 증민(烝民)편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어 두 사람을 섬긴다(夙夜匪懈以事一人)'의 뜻으로 부모와 임금을 잘 섬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 조선왕조 궁중채화의 전승과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곳에 그 당호를 올렸다.

한국궁중꽃박물관은 '제1회 아름다운 우리옷 맵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중화하며 후세대가 아름다운 우리옷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민족문화를 선양하고자 개최하는 대회이다. 4월 30일(목)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개관 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1. 궁중채화
2. 수로재
3. 비해당

1.



2.



3.



통영을 알고 싶으면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으로 가자!

만약 당신이 통영의 아름다움을 알고 싶다면 통영으로 여행을 떠나면 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짜 통영을 알고 싶다면 이곳으로 가면 된다.
그 어떤 도서관보다 통영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으로!





통영도서관에는 ‘통영’이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은 통영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곳이자 새로운 지식을 쌓는 곳이다.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취미활동을 펼치는 곳이자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것 외에도 통영도서관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바로 특화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통영도서관에는 ‘이순신 도서관’이 마련돼 있어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 역사의 발자취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

통영도서관은 그동안 통영을 대표하는 인물인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 임진왜란의 역사 등 통영에 대한 역사자료와 향토자료를 수집해 왔다.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기증받은 자료들을 한데 모아 종합자료실 내에 ‘통영·이순신’ 서가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관련 자료를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영·이순신 서가에 가면 김탁환의 장편소설 <불멸의 이순신>부터 김훈의 장편소설 <칼의 노래> 등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을 주제로 한 소설에서부터 통영의 공방과 공예, 통영시민의 생활상 등 통영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자료는 통영시민뿐 아니라 통영의 매력을 찾아온 여행자에게도 진짜 통영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누구나 이 서가를 둘러보는 것만으로 다시 한 번 통영과 사랑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관련 ‘통영다운’ 자료로 특화

통영도서관은 ‘1도서관 1특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통영다운 주제를 선택했다. 통영이란 이름에도 들어 있듯, 삼도수군통제영의 수장이었던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의 역사를 주제로 삼은 것이다. 통영도서관은 이 사업을 통해 통영·이순신 서가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이순신, 임진왜란 관련 프로그램을 열어 통영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의 숨결이 깃든 한산도 현장 탐방을 통해 역사 속 이순신을 만나기도 하고 ‘통영의 발견’이란 주제로 가족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내 품에 거북선’ 프로그램을 통해 우드펜시로 이순신 장군의 모습과 거북선 목걸이를 만들어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역사와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또 통영의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찾기 위해 해설사와 함께 삼도수군통제영을 찾아 통영의 이름에 대해 다시금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다. 이 밖에도 특강을 통해 이순신 장군과 제승당, 총렬사, 한산도 등 역사적 명소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방문해 보기도 하는 등 통영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환경 분야 선도 도서관 지정

한편 통영도서관은 이순신과 임진왜란 특화자료도서관으로 자리 잡은 데 이어 환경 분야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환경 관련 프로그램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환경과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전을 선도하는 한편, 관내 학교에도 환경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통영이 환경 선도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탄소제로 섬 탐방,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세포마을을 방문해 들과 숲을 걸으며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을 만나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통영도서관은 통영 향토 자료와 이순신 관련 자료, 임진왜란 관련 자료에 환경 선도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가장 통영다운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원향토자료전시관 양해광 관장

“창원의 추억을 공유합니다”

창원향토자료전시관은
개인이 수집한 자료와 기록이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되고 있는 전시관입니다.

“기록, 어제를 미래로 이어주는 소중한 자산”,
“기록은 추억을 남기고 추억은 사랑을 전합니다”
라는 메시지로 전시.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로 93-11
(월잠리 261-3번지)

휴무 : 매주 월요일(현재 코로나로 인한 견학 중지)

입장료 : 무료



INTERVIEW

향토자료전시관 양해광 관장

Q

각종 자료, 물품 등 정말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오고 관리해오셨다.

개인이 몇 십 년간 이렇게 방대한 양의
수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로
수집을 시작하게 되신지 알고 싶다.

타고난 성격 때문인 것 같다. 하나에 꽂히면 그것을 못
내버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9남매 중 여덟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누나들 책에 나오는 글들을 읽게 되면서 또래보다
조금 빠르게 글을 익혔다. 국어나 암기과목을 좋아하기도
했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소재들이 나오는 책이 좋았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년도 교과서의 글이 그리워지고 또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내가 쓴 공책이나 필통, 몽당연필
까지 모으게 되었다.

필름통도 마찬가지로이다. 원래는 모으지 않고 버리는
것이였다. 필름카메라가 사라진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 주남저수지에 온 사람들이 필름통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또 처리비용이 들게 되고
언젠가는 필름이 없어진다는 소리가 들어서 모으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는 추억 때문에 모으게 됐다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



Q

도 대표 생태관광지인 주남저수지와 연계한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
듯하다. 어떤 연계행사나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나

교복을 입고 전시관 안의 사진 배경을 이용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복을 입고 주남저수지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와도 좋다. 체험비는 무료이며
가방과 모자까지 있으니 이런 체험도 도민들이 즐겼으면 한다.

Q

창원의 많은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주셨다.
계획도시 이전에 창원의 모습이 많이 담겨있을 것 같다. 혹시 사진의 양이 얼마정도 되는지,
주로 어떤 사진들을 찍으셨고 도민들과
가장 공유하고픈 사진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1969년부터 2006년까지 찍은 필름사진이 35만 장, 그 이후로 찍은 디지털 사진이 20만 장으로 총 55만 장 정도다.

사진 한 장 한 장 모두 공유하고 싶다. 공직생활을 했다 보니 창원시민의 날 행사, 서울올림픽 당시 성화 봉송할 때 주민들의 환영사진, 창원시청 개청식 당시 시민들의 사진, 지역 체육대회, 단감축제, 수박축제에 참여했던 시민들 사진 등 내가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찍혀 있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 사진 속에 등장하는 모습을 아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 소중하다. 더욱이 우리 고장이 변화하던 모습, 예를 들어 창원시내 중심지가 전형적인 농촌마을인데 공단도시로 변한 모습, 초가지붕이 사라지고 현대식으로 바뀐 모습, 주남저수지의 변화 모습 등을 도민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1994년 3월부터 필름도 모으고 있다. 날짜와 시간, 장소를 필름에 다 적어놓고 사진은 무조건 인화를 한다. 이어나 각종 이유 등으로 필름을 많이 버리지만 이 필름이 실질적인 원본이다. 아무리 소중한 자료도 보존, 관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고 그 자료들을 못 찾게 되면 그것도 무용지물이다. 날짜와 사진, 장소들을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하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라도 필름과 사진을 바로 찾아 쓸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사진이 뜰 수 있도록 데이터 정리도 하고 있다.

모으는 것이 교훈이 되고 역사가 되는 기록문화의 기반이 된다.

Q

많은 분들이 기록은 후대에 남겨줄
아주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창원향토전시관을 통해 도민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마지막 종착점은 환경보존이다. 추억은 나의 개인적인 사항이고 환경처리 비용, 매각 등이 걱정된다. 환경보존에 대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종합적인 메시지는 환경보존이다.

Q

개인이 시작한 수집이 어느새 전시관이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 앞으로의 목표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목표는 꾸준히 이 자료들이 대대손손 물려 내려갔으면 하는 것이다. 수집품의 값어치가 아닌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전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나간 것은 무조건 내버리고 나쁜 것이 아니며 '온고지신', 옛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새것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이 더 발전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다.



상반기 도서관 행사 일정

도서관 주간 행사

거제도서관

안정현 작가와의 만남 4월 21일 10:00~12:00 / 제1강좌실
알뜰도서 교환전 4월 11~19일 / 1층 로비
연체자 탈출 이벤트 4월 1~26일
넵킨공예로 다용도함 만들기 4월 18일 15:00~17:00 / 제2강좌실
세계 책의 날 '책 드림데이' 4월 23일 09:00 / 1층 데스크

거제시립도서관

원화아트 전시 4월 25일 / 수양동복합청사 주차장(수양도서관)
삶을 가꾸는 글쓰기
5월 6일~7월 22일 매주 수요일 10:30~12:00(옥포도서관)
외포바다마을 작은도서관 개관기념 행사 4월 25일(장평도서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김성태 작가 초청강연회 4월 23일 / 시청각실

김해기적의도서관

박그루 작가와의 만남 4월 21일 10:00~12:00 / 2층 모뎀토론방
김은하 선생님 초청 강연회 4월 23일 19:00~21:00 / 다목적강당
편혜문 선생님 초청 강연회 4월 26일 14:00~16:00 / 다목적강당
봄맞이 화사 풀짓 꽃떡 만들기 4월 18일 10:00~12:00 / 영유아방
봄맞이 상금 압화 북마크 만들기 4월 19일 10:00~12:00 / 영유아방
과월호 잡지 배부 4월 19일 10:00 / 1층 사서 데스크 앞
봄꽃과 함께하는 그림책 원화 아트프린팅 전시 4월 1~26일 / 전시홀

김해율하도서관

안정현 작가와의 만남 4월 18일 14:00~16:00 / 세미나실

남해도서관

알록달록 풍선 미술쇼 4월 11일 14:00~15:00 / 2강좌실

창원성산도서관

세계 책의 날 기념 문화행사 4월 12~23일 / 성산도서관, 상남도서관

진동도서관

친구와 함께 떠나는 인형극 공연 4월 18일 14:00 / 강좌실1

산청도서관

'소소책박' 조경국 작가와의 만남 4월 1일 / 시청각실

삼천포도서관

존중받는 아이, 함께 크는 부모 4월 22일 10:00~12:00 / 2층 강의실
임요희 작가 강연 4월 25일 14:00~16:00 / 문화공연장
다빈치, 우주과학관 탐험
4월 25일 10:00~13:00 사천항공우주과학관
나만의 TEA 블렌딩 4월 24일 13:00~15:00 / 모뎀방
어린이 인형극&매직쇼 4월 26일 14:00 / 문화공연장
어린이 봄나들이 라탄백 만들기 4월 18일 14:00 / 모뎀방

진양도서관

인형극 '아기 돼지 삼형제' 공연 4월 11일 14:00~15:00 / 시청각실
우리도서관 책은요? 4. 7~4. 29일 / 각 자료실
진주 출신 작가 테마 전시 시즌2 오진주 4월 7~29일 / 도서관 로비
아이와 함께하는 양말목 핸드니팅 4월 18일 14:00~16:00 / 시청각실
진양 책나무 4월 7~22일 / 도서관 로비
정원 도서관(가족과 책읽기) 4월 25일 11:00~15:00 / 도서관 앞마당



진주시립도서관

인형극 공연, 원화전시 등 도서관 주간 행사
4월중 / 진주시립도서관 5개소

통영시립도서관

빅북 그림책 전시, 천연 손세정제 만들기 등 행사 4월 12~18일
통영시립충무도서관 도서관 주간 행사 4월 12~18일
통영시립산양도서관 도서관 주간 행사 4월 12~18일

하동도서관

책 사람을 읽다 -'마녀체력' 이영미 작가 특강
4월 18일 / 도서관 3층

합천도서관

'은혜 모르는 호랑이' 인형극 4월 18일 14:30~15:30 / 평생학습실

의령도서관

인형극 공연 4월 25일 예정 / 3층 다목적실



인문학

거제도서관

청소년 인문학21

4월 ~ 5월 / 거제지역 학교 도서관

- 남궁산 : 색으로 보는 문명과 문화
- 배유안 : 내 꿈은 내가 가꾼다
- 김수박 : 만화가와 함께 사회 바라보기

고성도서관

색으로 풀어보는 미술 인문학

4월 11일, 18일 14:00~16:00 / 시청각실

김해도서관

생각하는 인문학

·참살이 인문학

4월 7~21일 매주 화 14:00 / 3층 시청각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

5월 22일 ~ 6월 5일 매주 금 14:00 / 시청각실

·동양의 신화와 문화 6월 9~30일 매주 화 14:00 / 3층 시청각실

진영도서관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

5월 8~29일 매주 금 10:00~12:00 / 세미나실

마산도서관

2020 공감인문학

·오늘에 공감하다(노중훈 작가 토요일인문학 특강)

4월 18일 14:00 / 시청각실

·순수에 공감하다(이소영 토요일인문학 특강)

5월 16일 14:00 / 시청각실

·오늘에 공감하다(51회 토요일인문학 특강)

6월 20일 14:00 / 강좌실2

창원성산도서관

2020년 성산인문학 '채움과 비움: 통찰의 성산인문학'

·뮤지컬의 이해(원종원 교수)

4월 29일~5월 27일 매주 수 16:00~18:00

·윤동주(김응교 교수)

5월 23일~6월 27일 매주 토 10:00~12:00

창원도서관

일상의 인문학: 로자 이현우와 함께하는 영국 문학

4월 11일, 5월 9일, 6월 27일, 7월 25일 13:30~16:30 / 별관1 시청각실

하남도서관

퇴근길 인문학 및 1도서관 1특성화 인문학 강연

·미술의 창으로 본 세상 4월 3~24일 매주 금 / 19:00~20:40

·맹자, 마음의 정치학 7월 7~28일 매주 화 19:00~20:40

·건축은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5월 7~28일 매주 목 19:00~20:40

사천도서관

2020 인문학센터 프로그램 운영

4월~6월 / 시청각실

양산도서관

서민의 유쾌한 인문학

4월 11~25일 매주 토 14:00~16:00 / 시청각실

진양도서관

예술, 인문학을 품다

4월 4일, 25일, 5월 9일, 5월 30일, 6월 27일 / 시청각실

창녕도서관

창녕도서관! 인문학과 손잡다

4월 25일~8월 5일 / 별관 시청각실

통영도서관

통영인문아카데미

4월 4일~7월 4일 14:00 / 학교 도서관

함안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삶을 담은 건축 4월 중 / 3층 강좌실

·찾아가는 인문학 특강 5월~6월 / 함안지역 중학교

합천도서관

고전으로 만나는 인문학

·정승민 작가 초청 강연회

4월 11일 14:00~16:00 / 시청각실

·김경집 작가 초청 강연회

5월 9일 14:00~16:00 / 시청각실

·김영수 작가 초청 강연회

6월 20일 14:00~16:00 / 시청각실

상반기 도서관 행사 일정

강 연

고성도서관

유배, 절대 고독 속에 세계를 발견하다
5월 9~30일 매주 토 14:00~16:00

김해울하도서관

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천문우주과학강연
4월 19일 14:00~16:00 / 세미나실

마산도서관 지혜의바다분관

명사의 SEA間 <의학 박사 서민- 독서, 생각과 나를 만나다>
5월 23일 14:00

작가와의 만남

김해도서관

저자와 함께하는 강연 릴레이

- 김효경 작가 초청 강연 4월 18일 14:00 / 3층 시청각실
- 이소영 작가 초청 강연 5월 23일 14:00 / 3층 시청각실
- 김동식 작가 초청 강연 6월 20일 14:00 / 3층 시청각실
- 미우 작가 초청 강연 7월 11일 14:00 / 1층 이야기 놀이방
- 우종영 작가 초청 강연 7월 18일 14:00 / 3층 시청각실
- 유설화 작가 초청 강연 8월 8일 14:00 / 1층 이야기 놀이방

남해도서관

서정홍 시인 초청 강연회 4월 18일 14:00 / 2강좌실

산청도서관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 고대영 작가와의 만남
6월 13일 / 시청각실

밀양도서관

오정희 작가와의 만남 5월 27일 / 밀양도서관 소극장

기타 프로그램

거제시립도서관

1관 1단 공모사업- 동화를 각색한 연극단 운영
4월~11월 / 세미나실(하청도서관)

매직버블쇼(문화가 있는 날)

7월 29일 / 수양동복합청사 2층 다목적실(수양도서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사업 '그림책 제작'
4월~12월 / 시청각실

거창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

- 성인 : 시와 함께하는 삶, 중국어회화, 엄마심리수업, 캘리그래피
- 초등 : 마법천자문, 전통놀이 체험
- 별밤도서관 프로그램 성인 : 기초영어회화, 나도 이제 통기타
- 선도도서관(책놀이) 프로그램 유아 : Book적Book적 책 놀이터

진영도서관

꿈지락 공작소

4월 1일~8월 30일 09:00~18:00 / 어린이자료실

김해화정글샘도서관

1관 1단 사업(사진기능사 김복순)
4월 8일~11월 18일 / 어울림터

마산도서관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4월~6월 / 강좌실

마산도서관 지혜의바다 분관

파도의 선율 힐링공연 '빛방울의 노래' 6월 21일 15:00 / 1층 구암홀

마산합포도서관

책읽는 카페 'Coffee With 도서관'

3월 23일~12월 31일

도서관에서 하룻밤 캠프

8월 4~6일 초등 3학년 30명 대상

마산회원도서관

'달빛, 책빛' 도서관 야간 특강 : 인문학 등 주제
5월~6월 / 시청각실

꿈과 희망을 나르는 '찾아가는 책 이야기'

4월~7월 / 장애인 복지시설 10개소



창원의창도서관

의창도서관 상반기 문화교실

3월 2일~5월 28일 / 문화교실, 다목적홀

고향의봄도서관 상반기 문화교실

3월 7일~5월 9일 / 어린이자료실

명곡도서관 상반기 문화교실

3월 3일~5월 14일 / 다목적홀, 어린이배움터

숲속도서관

5월 중 예정 / 의창구 용지호수공원



진해도서관

상반기 문화강좌

4월~7월 어린이 및 성인 167명 대상

도서관에서 만나는 창원통합 10주년

6월 22일~7월 5일 / 진해도서관, 동부도서관

창원도서관

책읽는 즐거움달

5월 30일 11:00~17:00 / 별관 앞 잔디밭

진동도서관

한국차의 향기를 찾아서

5월 9~23일 토(3회) / 강좌실 및 하동 매암차박물관

밀양도서관

노블레스 오블리주 독서산책

6월 중 / 밀양도서관 소극장

밀양시립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3월 3일~6월 27일 / 문화교실 외 3개소

주말영화상영 2020년 연중 / 5층 시청각실

하남도서관

‘강아지동’ 샌드아트 공연 5월 27일 18:30 / 어린이자료실

사천도서관

유진 그림책 작가 1인 공연극 5월 9일 14:30 / 시청각실

삼천포도서관

고두현 작가 강연 5월 9일 14:00 / 도서관 문화공연장

양산도서관

우리아이 경제교실 6월 20일 14:00~16:00 / 3층 시청각실

양산영어도서관

내 아이 영어 Native Speaker 만들기 특강 5월 중 / 다목적강당

진주시립도서관

2020년 상반기 문화교실

6월 15일까지 / 진주서부도서관 외 3개 도서관 시청각실

창녕도서관

외국어 선도도서관(중국어, 영어회화) 4월 1일~7월 7일 / 별관 제1강좌실

통영도서관

선도도서관 프로그램

4월 29일~6월 27일 / 통영REC세아트리썬, 세포마을

통영시립도서관

통영시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초급영어회화Ⅳ, 지혜를 찾아가는 타로심리여행

통영시립충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오페라&컬처, 도담도담 그림책놀이 등

통영시립산양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양말목공예, 역사와 만나는 한자

하동도서관

시낭송 음악회 8월 20일 예정 / 하동도서관

함안도서관

꿈지락 책놀이 4월~6월 매주 토요일 / 3층 시청각실

세토문화나무 4월~6월 매주 토요일 / 3층 시청각실

나를 찾아주는 버쥬(미덕), 하브루타 4월~6월 매주 화요일 / 3층 시청각실

펜스케치 4월~6월 매주 목요일 / 3층 시청각실

함양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매주 수요일 14:00~17:30 / 열린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취약계층 독서 프로그램 진행

월 10:30~11:30, 화 14:00~16:00 /

해월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의령도서관

여름 독서교실 8월 11일 시작 예정 / 3층 다목적실

NEWS

공공도서관 소식

양산도서관

큰글자책으로 책 읽기 편해졌어요!

우리 도서관은 어르신들이 도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큰글도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큰글자책은 노안으로 인한 시력저하로 책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50대 이상을 위해 일반도서보다 약 1.5배 글자크기를 키워 보다 편안한 독서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한 책이다.

이는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도서관협회의 보급 사업으로 50대 이상에게 인기 있는 도서를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도서이다. 우리 도서관은 750여 권의 큰글자책을 구비하고 있으며, 자료검색 시 이용자들이 큰글자책임을 알 수 있도록 별치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큰글자책 코너가 마련되면서 중·장년층 이용자들의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노안으로 독서가 불편했던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산도서관 지혜의바다 분관

도서관 속 메이커스페이스 '지혜꿈발전소' 조성 - 3D프린터, 코딩, VR 등 다양한 메이커교육 운영 -

지혜의바다는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비구입비를 지원받았고, 상상창작방 한 칸에 3D프린터, VR장비, 3D펜, 전자장비 등을 갖춘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했다.

메이커스페이스란 개인이 가진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새로운 기술과 접목해 실험·제조해볼 수 있는 공유형 창작공간을 말한다. 개인이 설립한 경우 외에도 학교나 도서관 내 자체 메이커스페이스가 들어서면서 디지털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혜의바다 메이커스페이스인 지혜꿈발전소에서도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메이커 역량을 키워줄 장비 기초교육부터 책과 접목한 다양한 도서관형 메이킹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으로도 도서관이 메이킹을 위한 기기와 정보원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새로운 취미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해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은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를 2020년 도서관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만들고-고치고-공유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김해도서관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최신 정보기술을 습득하여 다양한 재료들로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작 활동 공간, 책을 통해 자유롭게 상상하고 상상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의 조성을 꾀하고 있으며, 아두이노, 레이저 커터, 3D 프린터, 3D펜, 승화전사 등의 디지털 메이커 체험교육과 더불어 지역 특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금관가야 3D로 만나다」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메이커 문화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도서관 1층을 2019년 9월부터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리모델링을 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에서 탈피해 책을 매개로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으로 변화했다.



합천도서관

생애 첫 책 읽기, 도서관에서 시작하세요!

- 2020년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시작 -

합천도서관은 북스타트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영유아들에게 책꾸러미 배부를 시작했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문화운동으로 도서관에서는 월령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단계에 맞는 그림책 2권과 북스타트 가이드북, 가방, 그리고 아가 스카프, 스케치북 등의 기념품을 함께 나누어주고 있다. 북스타트와 관련된 후속 프로그램 '책이랑 아가랑'은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상남도서관

생활SOC사업으로 주민친화형 열린 공간 조성

상남도서관은 2020년 생활SOC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친화형 도서관 환경을 구축한다.

2002년 개관해 현재까지 지식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왔으나 지역사회의 문화와 정보를 교류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자료실을 리모델링하여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고자 한다.

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독서+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북카페, 다목적실, 동아리실, 디지털자료실)을 조성할 예정이며, 5월~6월 중 공사를 시작해 7월에 개관 예정이다.

이번 생활SOC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통영도서관

어문학 자료실 리모델링 ‘책 읽는 케렌시아’

우리 도서관은 작년 말에 다문화코너를 디자인하면서 어문학 자료실을 리모델링했어요. “내 맘이 숨을 고르고, 내 손은 책을 고르는 곳, 이곳에서 쾌적하게 케렌시아(Querencia)하세요”라고 소식지로 널리 알렸지요. 겨울방학과 봄방학 사이에 청소년들이 어문학 자료실에 들어왔어요. 각자 자리 앞에 놓인 하얀색 조명을 어떻게 켜냐고 물었어요. 소설 속에서, 책장으로 된 문을 열면 비밀의 공간이 나타났듯 책상을 누르면 버튼이 나타나거든요. 순간 학생들은 “어뭘 예뻐라 책보며 사진찍기도 좋고”라며 신나 했고, 저는 “노트북 가져와서 글쓰기도 좋겠네요”라고 답했어요. ‘보드(Byod, Bring your own device)’ 개념으로 만든 공간이거든요. 책도 읽고 자신의 장치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민첩성을 살린 디자인이에요. 나중에 자료실을 다시 들여다보니 저마다 다른 문학책을 들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혼자이지만 함께, 각자 정서적 예의를 지키며 자기만의 고유리듬을 가지는 공공도서관의 이상적 풍경이었습니다.

다문화코너 설치

우리 어문학자료실 리모델링의 핵심은 다문화 코너 설치였어요. 자료실 입구 왼편에 매립형 불박이장으로 다문화 도서를 배치하였어요. 맞은편에는 나지막하게 그림책 표지가 보이도록 전시되어 있지요. 언어별로 공간을 재구성하여 이용자가 다가가기 쉽게 했어요. 다문화 코너 앞에는 둥근 탁자와 안락한 소파가 있어요. 회벽돌 거친 느낌 아래 따뜻한 조명이 비춰 주고 있어서 집과 직장이 아닌 제3의 공간에 들어섰다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곳이 다문화 이용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일상의 의미를 충전하는 살롱형 사랑채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주시립연암도서관

내년 5월 새롭게 태어난다

진주시민들의 지혜와 지식의 보고인 진주시립연암도서관이 내년 5월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는 총 24억 원을 들여 개방형 자료실·북카페 조성 등 최신 트렌드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너그러운 불편감수가 요청되고 있다.

연암도서관은 생활SOC공모사업으로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에 선정돼 균형발전 특별회계 4억 원과 내진보강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아 총 24억 원의 사업비로 개방형 자료실(열람실), 북카페 조성 등 최신 트렌드에 맞춘 리모델링과 시설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리모델링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주요 리모델링 사항에 대해 이용자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해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종합경기장 내 임시도서관에서 도서 대출·반납 업무 및 열람실을 기존과 같이 운영할 계획”이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공사 이후 시민들에게 한층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고 약속했다.



함양도서관

전지적 인문학 시점 ‘인문학 센터’ 운영

함양도서관은 함양군민에게 알맞고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인문학 센터를 운영한다.

6월에는 ‘집’과 ‘삶’을 인문학적으로 통찰해보는 ‘공간속 인문학’을, 7월에는 민족적 긍지를 함양하고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 속 인문학’을, 10월에는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에 맞춰 건강에 대한 인문학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속 인문학’을 운영한다.

더하여, 인문학을 어려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어려워하지 않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별도로 신청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두드리는 인문학’도 운영한다.

이번 인문학 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민들의 인문 소양을 넓히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인문학이 어려운 주제가 아닌,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것임을 알게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마산도서관

이동도서관, 통합창원시로 서비스 지역 확대

마산도서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산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이동도서관 운영지역을 통합창원시(의창구 북면, 진해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확대 개편된 운행지역은 북면 감계힐스테이트4차, 진해 에일린의들 아파트를 포함한 9개 지역이다. 이동도서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운영시간표에 따라 운행되며 경상남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 회원가입 후 2주간 10권의 책을 대출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마산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 문의 ☎240-4522)



고성도서관

새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다문화자료실 조성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은 협업하는 창조 공간(메이커스페이스) ‘어울림 배움터’를 조성하여 3D 프린터, 3D펜, 승화전사장비, 비닐커터기를 갖추고 창의융합 3D프린팅, 오감자극 코딩, 나만의 메이킹 활동 등 메이커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다문화 가족 증가, 특히 취학연령에 다다른 다문화 어린이 급증으로 독서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문화자료실’을 조성했다. 어린이자료실 내에 위치한 다문화자료실은 다문화 가족이 모국 문화 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형 서가와 입체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메이커스페이스와 다문화자료실 설치로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해동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진해동부도서관(관장 박우식)은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인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동부도서관은 창원시 진해구 동부권 유일의 도서관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제2신항 건립계획에 따른 진해구 동부지역(용원 일대) 인구증가와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화(2006년 개관)된 도서관 실내의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북카페 및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1층 휴게실 북카페 조성, 3층 1강의실 리모델링을 통한 메이커 스페이스 및 소모임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창의활동을 벌일 수 있는 생활 문화센터로서의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자료실 책 읽어주는 방 리모델링 및 수유실 설치, 강의실·자율학습실 리모델링,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 등의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서관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삼천포도서관

지하 휴게실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

삼천포도서관은 노후화된 지하 휴게실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했다. 누수 및 환기·조명설비·창틀 교체 등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싱크대 설치 및 전자레인지 등을 구비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리모델링 동안 기다려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새롭게 단장된 휴게실을 편안하게 이용하면 좋겠다. 삼천포도서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간 제공 및 도서관을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시민들에게 트렌드에 맞는 문화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거창도서관

도서관 시설 재배치 및 리모델링 완료, 재개관

재개관일: 2019. 10. 11.(금)

• 주요내용

- 본관 1층(412㎡) :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 본관 2층(351㎡) : 시청각실, 북카페, 소회의실, 문화강좌실, 보존서고
- 별관 1층(131㎡) : 관장실, 행정실
- 별관 2층(131㎡) : 자율학습실, 문서고



의령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관장 조성래)에서는 겨울방학 기간 모임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2020년도(제100회)겨울 독서교실 <일주 신바람 나는 우리 전통 이야기>와 겨울방학 특강<영어책과 함께 놀자> 및 <상상력을 키우는 두근두근 드론교실>을 운영했다.

운영 내용은 독서교실의 경우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초등 3~5학년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교육 ▲우리 도자기 만들기 ▲바람뚝 만들기 ▲다함께 즐기는 전통놀이 ▲전통 무드등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전통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방학특강의 경우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운영됐다.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한 드론교실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드론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영어교실은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저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 친숙해지고 영어책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동도서관

봄맞이 새옷 입은 하동도서관

2개월 동안 새옷 만들기 과정을 거쳐 드디어 하동도서관은 아이보리, 갈색, 노랑의 조화를 갖춘 모습으로 선보이게 되었다.

2019년 12월부터 실시한 외벽개선 공사는 외벽 금속제패널, 보도블록, 난간, 전등 간판 등을 설치했고, 현재 깔끔하고 화사한 외관으로 이용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매화와 벚꽃이 만개할 봄,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봄향기와 함께 새로운 기운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창원의창도서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생활SOC사업 추진

의창도서관은 다중이용 시설인 도서관을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생활SOC사업과 연계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1993년 개관한 의창도서관은 17억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1층 어린이자료실을 리모델링하고 생활문화공간 및 창작공방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노후시설 및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편안한 독서 휴식공간 제공 및 도서관을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해 시민들에게 트렌드에 맞는 문화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녕도서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자료실 개설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관장 강연희)의 본관 어린이자료실 내 유아코너를 리모델링하여 다문화자료실을 개설했다.

다문화자료실은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독서 문화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여 개국의 도서 약 3,500여 권을 비치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를 익힐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한쪽 벽면 전체에는 세계지도 및 나라정보 등으로 꾸며두었고, 서가의 위쪽 공간을 활용하여 각국의 악기, 기념품 등을 전시해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존과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구입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다문화 인식 개선 및 더불어 사는 지역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거제도서관

도서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예정

기간 : 2020년 5월~10월

• 내용

– 자료실 통합 운영

1층 유아·어린이자료실로 구성하여 중소음 공간으로 활용

2층 종합자료실은 종합실, 다국어실, 디지털실 경계를 최소화하여 통합 인포메이션 공간 조성

– 북카페 신설로 복합 문화공간 조성 및 전시·체험공간 확보

마음을 나누는 도서관

가을 문학기행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유유자적 미숙 (글사랑독서회 회원)

그동안은 작가, 문학관을 위주로 다녀왔는데 이번 기행은 온전히 자연 속으로, 몸과 마음이 가을날에 흠뻑 취해서 제대로 힐링의 문학기행을 누렸다. 태풍 '미탁'으로 연기될 뻔한 기행은 다행히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12명 회원 중 9명이 진양도서관에서 10시에 출발을 했다. 차를 탄 순간부터 우리들은 호호, 까르르 수다쟁이 소녀로 돌아간 시간이었다. 문학이 이러쿵, 저러쿵~ 뜬금없이 남편 홍보기, 그러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면 황강이 보이고, 참 좋다. 조금만 가면 목적지 해인사 소리길이다. 물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가 더할 수 없이 마음을 꽉 채우고 넘치는 충만감에 사로잡히는 경험이었다. 자연만큼 위대하고 소중한 게 또 있을까.

자연이 주는 행복이 참 새록새록 끝이 없다.

허신비 회원과 총무님 수고로 편안하고 멋진 기행이었다. 명색이 문학기행인데 책 얘기 한 줄은 나와야겠쥬~.

자연주의 문학사조의 대표적 작가 '에밀 졸라'를 이 가을에 만나 보고 싶다.



책으로 만나는 나의 첫 도서관

진주시립도서관 이선숙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강사)

오늘은 집 앞 공원에서 곱게 단풍이 든 낙엽을 줍습니다. 노란 은행잎과 빨간 애기 단풍잎 그리고 갈색으로 물들어 있는 벗나무 잎 모두 그림책 「내가 사랑하는 나무의 계절」을 읽고 난 뒤 독후 활동에 쓸 재료가 된답니다. 이번 차시의 활동은 '세밀화 그리기'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펜으로 세밀하게 그린 다음 수채물감으로 색을 입혀 보는 시간은 들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은 진주에 있는 도서관에 가거나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가 힘든 지역의 아이들에게 말 그대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기 초 진주시립도서관으로 수업 신청이 들어오면 사서 선생님께서 알맞은 곳을 선정하셔서 해당 학기 매주 한 번씩 12번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이름으로 첫 수업을 한 것이 2014년 상반기였으니 이번 겨울이면 햇수로 6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곳에서 책으로 아이들과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수업의 아쉬움과 처음 봤을 때 저학년이었던 아이를 고학년이 되어 다시 만날 때의 반가움, 예전 짧았던 수업을 기억하고 알은 체하거나 외락 안기는 아이들의 애정 표현이 참 좋고 저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매 학기가 시작될 때면 이번엔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떤 친구들을 만나 수업을 하게 될지 가슴이 설렌답니다.

열심히 12권의 그림책을 고르고 12차시의 수업 계획을 짜고 난 뒤에도 첫 수업을 하고 나면 수업 지도안과 독후 활동을 다시 정비할 때도 있습니다. '저학년 15명' 같은 사전 정보만 들고 현장에 가면 고학년과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 성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럼 독후 활동지를 준비한다든가 구성원에 맞게 그리거나 만드는 활동을 더 첨가하는 조정이 필요하지요. 지난 학기 아이들에게 즐거웠던 독후 활동을 물었더니 주인공 종이인형 입체북 만들기, 팝업 카드처럼 주로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같이 만드는 공동화 활동을 할 때면 웃고 떠드느라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책과 만나는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는 재미있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집중도'가 높은 그림책을 선정하고 한 시간 또는 한 시간 반의 시간 안에서 책을 읽고 난 뒤 자기 생각을 한 번이라도 말하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글 쓰는 시간을 또 하나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은 적게 활동은 많이 하는 독후 수업을 기획하는데 도서관에서 자료 지원을 해주셔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처음에는 독후감이나 독서일기를 써 주기를 바라는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계획한 프로그램을 믿고 맡겨 주십니다.

세밀화 그리기 독후 활동은 생각보다도 더 아이들이 잘 해냈습니다. 16명 중 3명이 남자 아이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정말 차분하게 그림을 그려서 잔잔한 피아노곡을 틀어 놓고 펜화를 그렸고요. 12명 중 2명만 여자 아이로 구성된 곳은 폐교의 장점을 살려서 운동장에서 나무 꺾이기, 나무 올라타기, 나무로 무엇이든 만들어 보기를 먼저 하고 각자 주위 온 낙엽으로 세밀화를 그려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새가 흠리고 간 깃털을 가져와서 그리기도 했습니다. 빨리 그려 버리고 다 했다고 하면 어찌나 했던 생각도 기우로 만들어 버릴 만큼 아이들은 잎과 잎맥의 모양을 따고 펜의 굵기, 수채물감의 색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며 채색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학기엔 또 어떤 활동을 새롭게 넣어 볼까 즐거운 고민이 시작되었군요.

어려운 만큼 성장, 성장한 만큼 함께

진해도서관 송자연 (사서)

소윤이는 해바라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룬형이는 항상 내게 먼저 손을 흔들며 반겨주었고, 하준이는 울다가도 간식이 보이면 “주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내미는 아이였다. 이 친구들은 모두 저마다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 장애아를 전담으로 맡고 있는 보배어린이집 늘찬반의 친구들이다.

2019년, 나는 한 가지 사업을 맡게 되었다. 이름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다독다독 도서관’.

내 앞에 떨어진 ‘장애인 어린이들에게 그림책 읽어주기’라는 과제는 막막한 일이었다. 일단 보배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나와 프로그램을 함께할 아이들을 만나보았다. 그 아이들은 6~7세로 이루어진 늘찬반 친구들이었다. 막막해하는 나에게 보배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늘찬반 친구들에게 비슷한 연령대의 비장애 아이들이 읽는 책을 읽어준다고 하시며 즉석에서 동화구연을 보여주셨다. 동화구연을 듣는 늘찬반 친구들의 뒤에는 선생님이 앉아 친구들이 책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말도 걸고 의성어 소리도 내며 동화구연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뒤에서 보았을 때 늘찬반 친구들은 대개 반응이 없었지만 그림책을 잘 보는 것 같았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나는 조금 안심하며 돌아왔었다.

동화구연 강사와 연극인을 선정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등등 세부적인 일을 처리하다 보니 드디어 3월, 내가 늘찬반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그림책 동화구연을 하는 날이 되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늘찬반 친구들 앞에 앉아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보던 것처럼 쉽지 않았다. 늘찬반 친구들은 반응이 없었고, 긴장이 되어 말은 빠르게 나왔다. 더군다나 친구들의 뒤에 선생님들이 앉아 있어서 한층 더 부담이 되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그날의 동화구연은 마무리되었지만, 다음번 동화구연에는 좀 더 많은 연습과 다양한 놀이가 필요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유튜브를 보며 손유희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만들기 수업을 찾았다.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책에 집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동화구연을 연습했다. 책과 친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같이 책을 보자고 말을 걸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반응이나 대화를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해간 것들에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가끔 친구들이 수업 중에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 당황스러움에 머릿속이 새하얘지기도 했다. 그래도 힘들 때면 함께 하는 동화구연 강사 선생님이나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고민을 나누었다. 장애인 친구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나 혼자서만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에 서로 다독여가며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프로그램은 10월까지 이어졌고 수료식까지 무사히 끝냈다.

돌이켜보면 뿌듯하고 보람찬 시간이었지만 당시에는 참 어렵고 힘들었다. 책 선정부터 독후활동까지, 학습에서 놀이까지. 보배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존경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고민이 많았던 만큼 나의 능력도, 마음도 성장했다. 보배어린이집의 친구들처럼 도서관에 접근하기 힘든 어린이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런 일이 도서관이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도서관이라는 말이 그저 말에 지나지 않도록, 한 번 더 늘찬반 친구들의 얼굴을 마음에 새겨본다.

작은 관심과 친절이 큰 힘 되는 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구동은 (사서)

작은도서관에서 일할 때였다. 보통 온몸에서 그날의 기분이 티가 나는 친구들이 귀여워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관심을 보이곤 했다. 처음에는 이런 관심을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선생님 이거 봤어요?” 하며 먼저 스마트폰을 보여 주고, 내 자리에 보석 스티커를 잔뜩 붙여주며 ‘도서관이 재미있다’, ‘선생님이 좋다’는 쪽지를 주곤 하였다.

자녀와 함께 자주 오시는 어머니들도 나중에는 “이번 주에는 일이 있어서 며칠 못 오겠네요” 하시며 먼저 일정을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이 공간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도서관이 일상에 스며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림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구에서 도서관을 들여다보시던 어르신들은 잘 들어오지 않으셨다. 그때 “들어오셔서 편하게 구경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들어가도 되나” 하시며 멋쩍어하셨다. 예쁜 그림책을 보며 곱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용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커다란 무언가가 아니라 서로에게 일상적으로 건네고 있는 작은 관심들이라는 것을 느꼈다. 작은 관심과 친절이 큰 힘이 되어 도서관을 맴돈다. 도서관이 다양한 이용자와 공간을 꾸려가는 사서들이 어우러지는 동네 사랑방이면 좋겠다. 지역사회에서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꾸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서로 행복해지는 감정을 나누는 곳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정호영 (사서)

도서관에서 일한 지 3년째가 지나간다. 길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이런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건 정말 처음이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전염병 때문에 휴관중이라니... 실감도 안나고 걱정도 많다. 이에 따른 이용자 및 업체의 전화와 문의도 많다. 문은 여는 거냐, 프로그램 예정은 어떻게 변하느냐, 강사분들 일정은 어떻게 변하느냐... 모든 일이 급작스럽고 어려운 형태라 다들 힘들 법도 하신데 다들 도서관 걱정을 해주신다. ‘힘드시죠’, ‘빨리 열어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희 일정은 괜찮으니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등등. 배려와 걱정을 나눠 주심에 감사할 따름이다.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도서관에서 즐거움을 나눌 때도 많다. 도서관 개관기념일엔 떡을 나누며 이용자와 기쁨을 나누고, 인형극을 열어 가족들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들어주며 서로 행복해지는 그런 감정을 나누는 도서관이다.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완벽에 가까울 순 없겠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나누고 무언가를 공유하고, 무언가에 대해 도서관과 사서와 이용자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커다란 증거가 아닐까 싶다. 무엇을 나누든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이 반으로 되는 도서관이 지역에 존재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형태의 도서관 중 하나라 믿으며 오늘도 도서관과 사서는 이용자와 함께 움직인다.

항상 도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김근우 (신규사서)

이용자를 이해하는 마음은 사서의 경쟁력입니다. 이해성을 갖춘 사서가 성공하고, 이러한 사서들로 구성된 도서관이 미래를 주도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저는 먼저 이용자들이 오시면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서가로 안내해 드렸고, 이용자들이 도서를 가져 오시면 부드럽게 인사를 하고 대출일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종합자료실을 나가실 때에는 행복하고 밝은 미소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린 이용자들에게, 저는 절대 조금해 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을 움츠리는 이용자들에게는 따뜻한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합자료실에서 서가를 둘러보시고 나오시는 이용자께서 먼저 다가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로 의기소침한 여학생의 자존감 형성을 위한 특별한 도서의 추천을 문의했습니다. ‘삶이 지속되는 만큼 영원한 질문을 나름의 의미 있는 단어로 해답을 주는 책’으로 조언을 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번역본의 안내서를 도서관으로 선정하여 추천했습니다.

디지털자료실에서는 유독 다른 학생과 다르게 나이가 어리고 수다가 많은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간혹 직설적인 말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본심은 누구보다 따뜻한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려 노력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감정에 솔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꽃잎만 봐도 꽃웃음을 짓는 순수함을 알아 DVD 위치나 도서관 회원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먼저 알려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 2개월의 도서관에서의 경험은 길지 않지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10분을 늘리고 20분을 늘리다 보니 어느덧 자료실의 불을 켜고 앉으며 저녁에 불을 끄고 나가는 것은 자연스레 제 일이 되었습니다.

이용자의 불만사항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늦은 시간까지 선배 선생님들과 함께 장서를 점검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와 시련에 좌절하기보다는 항상 도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도서관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늘 이용자를 고민하는 사서가 되겠습니다.

개관이 기다려지는 도서관 속 인문학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권해드니 (사서)

진동도서관에서 일하게 된 지도 벌써 3년차에 접어든다. 해마다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되지만 3년 동안 계속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도서관 속 인문학>이라는 사업인데, 책과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인문 소양을 높이 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어, 작년에는 지역 인문학 센터로 지정되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을 때에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머리를 짜내어 주제를 정하고 강사를 섭 외해도 이용자가 많이 들으러 올 거라는 장담도 할 수 없고, 기대를 하고 찾아 주셨는데 기대했던 강의가 아닐 때도 있다.

주제를 고를 때부터 고민을 엄청 하고, 그 다음엔 어떤 강사들을 섭외해야 할지 관련 책들을 읽으며 고민하고, 그 이후엔 간 식을 어떤 걸 살지, 현수막은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지, 어디에다 홍보해야 할지 고민의 연속이다.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맡는 건 매회의 강연을 즐겨 주시고,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시는 이용자들 덕분이다. 우리 도서관 에는 언제나 방문할 때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는지 물어보는(모집할 때 꼭 연락달라고 신신당부하시는) 이용자 들도 많고, 강의를 마친 후 오셔서 이런저런 점이 좋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용자도 있다.

어떤 분은 프로그램 강사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에게도 고맙다며 사인을 받아 가시기도 했다(제가 큰 인물이 되어야 할 텐 데...). 강연뿐만 아니라 현수막도 항상 마음에 든다고 생각지도 못한 칭찬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작년에 수줍게 주고 가셨 던 직접 농사지어 키웠다는 옥수수차는 아직도 잘 먹고 있다.

올해에도 벌써 “ 쌤 언제쯤 인문학 특강 할 거예요? 같이 들을 사람 미리 섭외했어요~ ”라고 말씀해주신 분도 있었다. 혼자 고민하지 않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바쁜 주말에 시간 내어 강의를 재미있게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인문학 프로그램 담 당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옿햐~

지금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휴관 중이라 이용자도 없이 직원들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들 이용자를 그리워하 고 있다. 어서 빨리 개관해서 이용자와 반갑게 인사하고 싶다. 4월에는 꼭 얼굴 보며 웃을 수 있기를!

도서관에서 사람을 만나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박경혜 (사서)

학창시절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인사하는 걸 어려워했다. 그러했던 나의 꿈이 사서였더니 사서가 된 지금 되돌아보면 본인 성향과는 참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 싶다. 그 당시 수서나 정리와 같은 자료개발 업무만을 생각하고, 사서가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 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 자료실 데스크에 앉은 날은 긴장감에 이용자와 제대로 눈도 맞추지 못하고 질문에 답변하기 급급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점점 이용자의 얼굴이 개개인으로 인식되어 가는 동안 자연스레 나도, 그리고 이용자도 서로가 친근해졌다. 책을 빌리러 온 아이들과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이가 점점 책을 안 읽는다는 부모님의 걱정에도 공감하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고개를 가웃하는 이용자가 보이면 나서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서 또 새로운 분들과도 인연을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다양한 주제 분야의 전문 강사님들이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섭외 전화를 거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 메모지에 할 말을 정리해두고도 번호를 누르기가 쉽지 않았을 정도였다. 우려와는 달리 처음 인사말을 전할 때부터 반갑게 응대해주셨고, 각자의 사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

동료 선생님들과 대화를 할 때도 혹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소극적이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 특히 우리는 2~3년에 한 번씩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데, 익숙했던 근무지를 떠나 새로운 근무지에 출근하는 날 버스 안에서 내심 떨었던 기억이 있다. 뉴 페이스 환영이라고 기쁘게 맞이해 주셔서 금세 나아지긴 했지만.

도서관에서 일한 기간이 길진 않지만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쌓아 가며 마음의 울타리가 넓어진 느낌이다. 도서관을 벗어나면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기가 어렵고, 괜한 고민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지만 가끔 예전보다 변죽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때면 조금은 타인에게 느끼는 거리감이 줄어든 게 아닐까 한다. 책을 손에 쥐는 만큼 사람을 만나야 하는 사서의 일이 나를 조금씩 폭넓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고 싶다.

경 남 지 역 공공도서관

거제시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637-6311	http://gjlib.gne.go.kr
	거제시립수양도서관	639-3891	
	거제시립옥포도서관	639-3881	
	거제시립송포도서관	639-3871	http://www.lib.geoje.go.kr
	거제시립장평도서관	639-3861	
	거제시립하청도서관	639-3921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940-8470	http://library.geochang.go.kr/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944-8594	http://gclib.gne.go.kr
고성군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673-8461	http://gslib.gne.go.kr
	고성동부도서관	670-2916	http://www.goseong.go.kr/gslib
	고성동부도서관	670-2916	http://ghlib.gne.go.kr
김해시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320-5500	
	김해기적의도서관	330-4651	
	김해장유도서관	330-7461	
	김해진영한빛도서관	330-4831	http://lib.gimhae.go.kr/
	김해칠암도서관	330-4591	
	김해화정글샘도서관	330-2991	
	김해울하도서관	340-7161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345-1995	http://jylib.gne.go.kr
남해군	경상남도교육청 지혜의바다	330-9800	http://ghj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864-0973	http://nhlib.gne.go.kr
	남해화전도서관	860-3871	http://lib.namhae.go.kr/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353-6977	http://mrlib.gne.go.kr
밀양시	밀양시립도서관	359-6026	http://www.myclib.or.kr
	밀양시립영어도서관	359-6045	http://eng.myclib.or.kr/
	경상남도교육청 하남도서관	391-1848	http://hnlb.gne.go.kr
사천시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853-8401	http://salib.gne.go.kr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855-8853	http://elc.sacheon.go.kr/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835-4436	http://scplib.gne.go.kr
산청군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973-2544	http://san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385-7056	http://yslib.gne.go.kr
양산시	상북어린이도서관	392-5936	
	양산시립도서관	392-5900	
	양산영어도서관	392-5940	http://lib.yangsan.go.kr/
	양산웅상도서관	392-5950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572-0941	http://urlib.gne.go.kr
의령군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761-2722	http://jinlib.gne.go.kr/
	진주연암도서관	749-5982	
진주시	진주서부도서관	749-5983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749-5984	http://lib.jinju.go.kr/
	비봉어린이도서관	749-7494	
	도동어린이도서관	749-7496	
	창녕군영산도서관	530-1931	http://ysl.cng.go.kr/main/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526-1490	http://njlib.gne.go.kr
창녕군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532-9501	http://cnlib.gne.go.kr
	경남대표도서관	254-4811	http://lib.gyeongnam.go.kr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240-4521	http://mslib.gne.go.kr
창원시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지혜의바다분관	252-3860	http://jh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271-8145	http://jdl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78-2831	http://cwlib.gne.go.kr
	고향의봄도서관	225-7371	
	내서도서관	225-7481	
	동부도서관	225-7531	
	마산합포도서관	225-7441	
	마산회원도서관	225-7471	
	명곡도서관	225-7321	https://lib.changwon.go.kr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225-7492	
	진해도서관	225-7511	
	상남도서관	225-7411	
통영시	성산도서관	225-7391	
	의창도서관	225-7331	
	진해기적의도서관	547-0095	http://www.jhml.or.kr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648-8093	http://tylib.gne.go.kr/
	통영시립도서관	650-2630	
	통영시립산양도서관	650-2500	
	통영시립옥지도서관	650-4580	http://www.tongyeonglib.or.kr
하동군	통영시립충무도서관	650-2640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884-7981	http://hdlb.gne.go.kr
함안군	함안군립칠원도서관	580-3643	https://www.haman.go.kr/chilwonlib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583-6919	http://hmlb.gne.go.kr/
함양군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963-3186	http://hylib.gne.go.kr/
합천군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932-0521	http://hclb.gne.go.kr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대표전화 055)254-4811 | 팩스 055)254-4819